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 골로새서 1:24 Colossians -

4 월 40 도, 5 월 50 도라고 현지인들이 말하는데, 요즘 거의 40 도로 덥기 시작했습니다. 종려 주일에 해피홈 아이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면서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모든 지역에서 세족식을 하며 성만찬을 나누었습니다.



Good News Club 활동과 어린이 사역은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도와 양육으로 진행되는데 요즘은 주로 양육에 더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세워져 있는 곳에는 성인 성경공부반도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결신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4 곳의 해피홈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Children in Ruth Home, 4th Happy Home)



간단한 클리닉 팀을 만들었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마을에 먼저 들여보내어 전도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글라데시 2차 선교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차 팀에는 뜨립띠와 바수비를 포함시켜서 방글라데시 여성들을 전도대상자로 많이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그곳에서는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면 위험합니다.
(preparation for 2nd Mission team to Bangladesh)



<< 간절한 마음의 소원 >>

- 지역 복음 전도율 10 % (현재 꼴까타 북쪽, 지역별로 0.1~2% 미만)
- 네 곳의 고아원 아이들을 믿음의 용사로 잘 양육하는 사역.
- 전략적인 곳에 예배당을 세우고 모델 교회로 만드는 사역.

매일 10 분 이상 세계 선교를 위해 강력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벨톨라 Community Center 를 담당하고 있는 바빠가 내년에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졸업후 Basirhat 지역의 귀한 전도자가 되기를...
2. 마답뿌르 교회의 사다십이 더 담대하게 주변 마을을 전도해 나가기를...
그리고 신학교 재학중인데, 학업도 잘 감당하기를...
3. 모든 지역에 Girl Group, Boy Group 을 만들고 제자로 양육하기를...
4. 단야꾸리야교회를 맡고 있는 미히르가 주변 마을 5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 공부반과 주일 학교가 올해에 더 활발하게 운영되기를...
5. 4 곳의 고아원 아이들 숙소 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몇 달 내로 마무리되길...
6. 2024 년 방글라데시 2 차 전도팀을 5 월 초에 파송할 예정으로 구성 중입니다.
그 땅의 택한 여자들에게서 많은 결신자가 나오기를...
7. 10 년 만에 주님의 영광교회 선교팀이 다시 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큰 은혜가 임하기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Good Friday 에 모든 제자들이 하루를 금식하며 세족식을 하였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고난보다 죄의 잔을 마셔야 했던 주님의 처절한 절규와 겻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부르짖고 기도하신 주님의 외로움에 대해 전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만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전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요 가기 싫어도 가야만 하고, 주님의 일은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숙명이라고 제 자신에게 소리치는 심정으로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다시 영적 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동역자께서도 기가 싫어도, 하기 싫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굳게 나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

박상수/이덕순 선교사 (freephilip@hotmail.com)